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옹진군의의회 소식지

2018_vol.17 www.ongjin.go.kr/council



인천광역시 옹진군의의회

발행 |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발행인 의장 백동현)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6층 의회사무과

전화 | (032)899-3032~5

팩스 | (032)899-3039

사진 | 옹진군

홈페이지 | <http://www.ongjin.go.kr/council>

- 본소식지는 2017년 7월 ~ 2018년 7월까지의 의정활동을 수록하였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복제를 금하며,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옹진군의회 소식지는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05 발간사

06 제7대 후반기 웅진군의회 의원 구성 현황

08 의정활동 사진

20 의원 인터뷰

26 의정포커스

· 통계로 본 의정

· 주요 제정 조례

· 의정 주요 질문답변

50 웅진군의회 채택 결의안

56 각 면별 도서방문

60 행정사무감사

61 협의회 활동

63 의회알림



표지설명
자월면 대이작도



발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옹진군의회의장 백동현입니다.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 속에 제7대 옹진군 의회가 개원을 하고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의원 모두의 포부와 열정을 믿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버팀목과 디딤돌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군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 소식을 정리하여 군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옹진군의회의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옹진군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옹진군발전이라는 비전으로 열심히 활동한 소식을 군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의정소식지를 통해서 옹진군의회의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하셨는지 살펴보시고,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옹진군여건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대책마련하고자 노력하신 제7대 옹진군의회의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옹진군의회의 의원님들께서 펼쳐실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옹진군의회의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 6.

옹진군의회의장 백 동 현

제7대 용진군의회 후반기 의원 구성현황



의장 **백 동 현**



부의장 **장 정 민**



의원 **김 기 순**



의원 **김 성 기**



의원 **김 형 도**



의원 **신 영 희**



의원 **최 성 일**

Ongjin District Council

PHOTO NEWS





옹진군 양성평등주간기념식

2017년 7월 11일 옹진군의회 백동현 의장은 양성평등주간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풀등섬나라 대이작도 여름개장식

2017년 7월 12일 옹진군의회 의원일동은 풀등섬나라 대이작도 여름개장식에 참석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관광응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흥면 장경리해변 물놀이 시설 개장식 참석

2017년 7월 20일 옹진군의회 의원일동은 영흥면 장경리해변 물놀이 시설 개장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단장된 물놀이 시설의 개장을 축하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덕적면 해수욕장 방문

2017년 7월 26일 옹진군의회 김성기 의원은 덕적면을 방문하여 해수욕장 근무자 격려 및 주요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연평면 민생현장 방문

2017년 8월 1일 웅진군의회 김성기, 신영희, 최성일 의원은 연평면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뵙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대청면 수산물냉동냉장시설준공식 방문

2017년 9월 1일 웅진군의회 김형도 의원은 대청면을 방문하여 지역발전에 새로운 기점이 될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준공식에 참석하여 축하테이프를 커팅하였다.



인천광역시주민자치위원회한마음 대회에 참석

2017년 9월 12일 웅진군의회 의원일동은 제3회 인천광역시주민자치위원회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경축하며 웅진군민과 인천시민들이 서로 환영하고 화합과 하나되는 축제를 부탁하였다.

『제44회 웅진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

2017년 9월 20일 웅진군의회 의원일동은 영흥면에서 열린 『제44회 웅진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축사를 통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석

2017년 9월 28일 웅진군의회 의원일동은 농수 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특산물을 구매하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였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연평도방문 참석

2017년 10월 10일 웅진군의회 김성기, 최성일 의원은 인천광역시장 연평면 방문에 함께하여 주민생활관련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였다.



제9회 웅진맛자랑경연대회 참석

2017년 10월 17일 웅진군의회 의원일동은 제9회 웅진맛자랑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웅진의 맛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 하였다.

영흥도 망둑어낚시대회 참석

2017년 10월 21일 웅진군의회 백동현 의장, 김기순 의원은 영흥도 망둑어 낚시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참석자분들에게 웅진군을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체전 용진군카누선수단 격려

2017년 10월 23일 용진군의회 의원일동은 전국 체전에 출전한 용진군 카누선수단의 경기 현장을 방문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한 선수단을 격려하였다.

제22회용진농업인의날기념식 한마음대회

2017년 11월 9일 용진군의회 의원일동은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고 농업인과 함께 힘을 모아 용진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촌사랑,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공립이작어린이집 개원식 참석

2017년 11월 21일 용진군의회 백동현 의장과 김성기 의원은 공립이작어린이집개원식에 참석하여 좋은 시설을 갖추고 개원한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의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준공 테이프커팅을 하였다.

연평안보수련원 준공식 참석

2017년 11월 23일 용진군의회 의원일동은 연평안보수련원 준공식에 참석하여 그간 준공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및 관계자를 치하하고 향후 연평안보수련원의 활발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연평도 포격7주기추모식 참석

2017년 11월 23일 웅진군의회 의원일동은 연평도 포격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의 참 뜻을 되새기고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했다.

대청면 면청사 초입도로 정비 준공식 참석

2017년 11월 24일 웅진군의회 김성기 의원은 대청면 면청사 초입도로 정비준공식에 참석하여 준공을 축하하며 테이프를 커팅하였다.



『웅진군 농업대학 졸업식』 참석

2017년 11월 29일 웅진군의회의원 일동은 웅진군 농업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농업대학 졸업을 축하하고 웅진군 발전을 위해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며 지역과 이웃에 꼭 필요한 전문가가 되어주시기를 당부 했다.

영흥도낙시어선(선창1호) 사고현장 방문

2017년 12월 3일 웅진군의회 의원은 영흥도 낙시어선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및 인천광역시장과 논의 하였다.





제9회 웅진섬외국어경진대회 참석

2017년 12월 8일 웅진군의회 백동현 의장은 효심관에서 개최된 『제9회 웅진 ‘섬’ 외국어 경진대회』 축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어 실력 향상에 노력해 온 학생들을 격려하고 최우수 학생에게 수상하고 축하하였다.





영흥면 신년인사회

옹진군의회 의원일동은 2018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북도면을 시작으로 『2018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새해 아침 희망을 가득안고 힘차게 솟아 오른 태양처럼 면민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엔 건강한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당부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연평도 방문

지난 1월 8일 옹진군의회 의원 최성일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연평면 방문에 참석하여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을 건의하고 논의하였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옹진군시민 행복대화

2018년 1월 29일 옹진군의회 일동은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옹진군시민행복대화에 참석하여 옹진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하였다.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정기총회

2018년 1월 30일 옹진군의회 백동현 의장은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참석하여 의정발전을 위하여 서로 화합과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였다.





적십자특별회비 전달

지난 1월 31일 웅진군의회(의장 백동현)는 대한 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인도적 활동에 열의를 다하는 적십자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희망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였다.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정

2018년 3월 2일 웅진군의회 신영희 의원은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어 관내 농림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 활동을 펼쳤다.



제15회 영흥풍어기원제 참석

2018년 3월 2일 웅진군의회 백동현 의장은 제15회 영흥 풍어기원제에 참석하여 영흥면의 수산업 발전을 축원하였고, 안전한 조업활동을 기원하였다.

웅진군수산물감시선(웅진갈매기) 취항식

2018년 3월 12일 웅진군의회 의원일동은 수산물 감시선(웅진갈매기호)의 취항식에 참석하여 취항을 축하하고 웅진갈매기호가 가는 길에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염원하였다.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정기총회

2018년 3월 16일 옹진군의회의 백동현 의장은 대한노인회 옹진군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옹진군 발전을 위한 노인회의 역할에 대하여 축사를 하였다.

옹진군농업대학 입학식

2018년 3월 21일 옹진군의회의원 일동은 옹진군 농업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입학하는 주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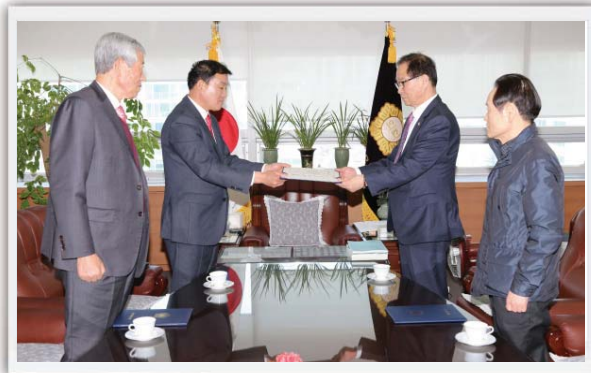
제5회 연평도한마음 기원제

2018년 3월 22일 옹진군의회의 최성일, 신영희 의원은 제5회 연평도 한마음 기원제에 참석하여 행사를 축원하였다.

2018년 제1차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참석

2018년 3월 27일 백동현 옹진군의회의장은 2018년 제1차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군·경 위문계획과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의견을 논의하였다.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2018년 4월 4일 웅진군의회 백동현 의장은 2017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번 예산결산검사가 앞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바른 예산의 운용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결산검사를 부탁하였다.

백령 다목적 실내체육관 준공식

2018년 4월 6일 웅진군의회 김형도, 김성기 의원은 백령 다목적 실내체육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온 주민이 하나되어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기회의 공간이 되어주기를 희망하며 준공 테이프 커팅하였다.



유정복인천시장 대청면 주민행복대화

2018년 4월 7일 웅진군의회 김성기, 김형도 의원 및 인천광역시장은 대청도 주민과의 행복플러스 대화에 참석하여 마을 현안사항과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장봉도 여행자센터 개관식

2018년 4월 21일 웅진군의회 의원일동은 북도면 장봉도 여행자 센터 개관식에 참석하고 관광웅진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백령면 어버이날행사

2018년 5월 8일 옹진군의회 김형도 의원은 백령면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여러 노인분들에게 그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연평면 민생현장방문

2018년 5월 11일 옹진군의회 최성일 의원은 연평면 민생현장과 군부대를 방문하여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장병들에게는 노고를 치하하였다.



덕적면 북1리경로당 준공식

2018년 5월 14일 옹진군의회의원 김성기, 장정민, 신영희 의원은 덕적면 북1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단장된 경로당의 준공을 축하하고, 앞으로 활발한 활용을 당부하였다.

덕적소야교 건설공사 개통식

2018년 5월 25일 옹진군의회 김성기 의원은 덕적면 덕적소야교 개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고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Ongjin District Council

언론으로 보는 의회



중부일보

2017년 08월 01일 화요일 021면 사회

“남은 임기 1년, 행복한 섬 만들기 전력”

이슈 & Talk

백동현 웅진군의회 의장

관광객 위해 다양한 축제 여는 등 섬 가치 제창조 사업에 적극협조
郡속원사업도 마지막까지 최선

“남은 1년 동안 2만 웅진군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민원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동현(63) 웅진군의회 의장은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하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현장과 정책을 중시하는 의원으로 꼽힌다.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 영흥발전여촌계와 웅진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이사를 역임하면서 보고 배운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업과 어업 중심인 군 특성에 맞는 주민 소득 증대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군과 함께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특화 작물을 육성하고 청정 고

품질 농산물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켰다. 특히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전문인력 교육과 웅진농업대학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데 의원들의 전체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백 의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업 등 대다수 조직에서 불협화음이 발생 하는 것처럼 의회에서도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장은 의회의 리더로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소통과 화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군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는 현상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백 의장은 올해 웅진군을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민박 시설을 정비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진행해 관광객들

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를 열고 섬 가치 제창조를 위한 사업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은 임기동안 6명의 의원들과 함께 군 속원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군은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해상교통여건과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이다. 또 부족한 식수와 수산자원 감소, 북한의 도발 등은 단기 해결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백 의장은 “우리 군이 떠내고 있는 문제들은 인천시와 정부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섬마을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없는 군정을 펼쳐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진기자

기호일보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006면 종합

웅진군의회, 한국지엠 철수 반대 결의안 채택

인천시 웅진군의회는 지난 16일 을 심의 의결했다. 부터 20일까지 5일간 제19회 웅진 군의회는 웅진군 여성발전기본 군의회임시회를 갖고 10건의 의안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

례안과 북도면 장봉2리 소규모 폐안 및 기업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인천의 자동차산업발전과 인천경제의 낙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임시회에서 ‘한국지엠 철수

시민일보

2017년 09월 06일 수요일 004면 의회&공무원

인천 웅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김형도 의원 결의안 채택

인천 웅진군의회의는 지난 8월25일부터 9월4일까지 총 11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198회 웅진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6~2017년도 도서방문시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해 예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군의회는 김형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1991년 이래 시작된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았다.

백동현 의장은 “웅진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내 조속히 현안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백동현 제7대 용진군의회의장 개원 3주년'을 맞이하다

섬 교통 개선·관광 활성화 등 민생 현안중심 의정 약속해요

“군민들의 여백없는 격려와 지원 속에 제7대 용진군의회가 개원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의원들의 포부와 열정을 믿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다짐들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군민을 대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연천 용진군의회의 백동현 의원은 지난 3년간 현정공감의 의정을 중시해 왔다. 도서 지역과 각종 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높이고자 발도 뛰는 의정을 펼치고자 했다. 그 결과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여는 ▶이역선 운항 통제 완화 및 화물운송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연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선정 청원 결의안 ▶중국 여객선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 규탄 결의안 ▶인천공공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 ▶새울고동 법원 안전관외재판부 설치 건의 ▶인천국제공항 소음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육상중요생산업 허가신청 불허 요청 청원 동의 ▶해안경관청탄 단독 외정 부활 및 안전 관리 촉구 결의안 ▶대박 청원 외 입막(농어촌특별법) 행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백 의원은 “그동안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앞서 말한 결의안 등의 채택은 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군민의 목소리를 감히 외치지 않기 위해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며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여적인 제7대 의회는 소통중심, 대안중심, 현정공감의 강한 의의를 품



지역의 사업 현장 곳곳 누비고 군민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의회 흡피 등 온오프 소통 활짝

표로 승 가변 3년을 보냈다. 백 의원은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새로운 시작 발단은 물론 군민의 뜻과 정서가 반영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데 의기결연하겠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현정공감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관행이 마

음으로 열릴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문화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백 의원은 도서 지역의 안개와 고령연구 중가 극복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청정 지역의 불안전한 보살핌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가뭄으로 농수산물들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제갈경기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백 의원은 “도서 지역 교통 불편 문제나 물 부족 문제 해소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군민의 대표로서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chilbo.com

군·구·의·원

최성일 용진군의의원

연평도민 ‘고충 해결사’ 됐다

안보수련원 설립 헌신-남은 임기 식수난 해결·연도고 건설 최선

최성일 연천 용진군의의원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표적이 발생한 당시, 주민을 돌보는 데 힘썼다. 연평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비상사태로 불안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 일을 계기로 최 의원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자며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섬 식수 부족 해결과 영종-신도-강화 연도고 건설 등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보 관광지로 거듭나는 연평도 최 의원은 연평도를 안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주력해왔다.

그 첫 발걸음으로 옛 연평도 중·고등학교 자리에 안보수련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그 결과로 이달 23일 안보수련원 준공식이 열렸고, 내년 3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안보수련원이 운영을 시작하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한다”며 “연평도가 보안 교육의 전초 기지로서 새로 인식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평도 환경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었다.

연평도 마을 담구에는 지난 20년 동안 준설도 투기장이 조성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겪었다. 최 의원은 준설도 투기장 자리에 공원을 새로 만들었다. 주민들은 새로 탈바꿈한 공원에서 산책과 휴식을 할 수 있게 됐다.

▶도서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나서

남은 임기 동안 최 의원은 여객선 정기 운항과 영종-신도-강화 연도고 건설 등 도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먼저 그는 인천과 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정시에 운항할 수 있도록 부잔교를 설치한다. 소연평도에는 부잔교가 없는 탓에 물때에 따라 운항 시간이 변동돼 주민들이 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 아파한 했다. 부잔교 설치 예산으로 올해 16억원, 내년에는 32억원이 반영됐다. 또 도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영종-신도-강화 연도고, 모도-장평도 연도고 건설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다리는 경제성 보다 공익이 더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들과 힘을 모아 다시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기자 kchung@incheonilbo.com

용진군의의회 “영흥수도 대형 선박 통항 금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용진군의의회는 급유선과 낚시배 충돌 사고가 발생한 영흥수도에 대형 선박 통항을 금지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영흥수도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14일 채택했다.

군의의회는 이날 “영흥수도는 뱃길 폭이 370~500m에 불과해 평소 소형 어선도 서너 척이 겨우 동시에 통항할 수 있는 좁은 수로지만 대형 선박이 하루 7차례 이상 운항해 충돌사고가 항상 우려된다”며 “해사안전법에 따른 정식 항로가 아니고 선장 판단으로 어느 선박이든 운항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형 선박 통항을 전면 금

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영흥도 진두항 항만시설 확충도 요청했다. 1986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영흥도 진두항(면적 5만1000㎡)에는 방파제(길이 413m)와 부두(길이 75m)가 설치돼 있지만 너무 짧거나 폭이 좁다.

해양수산부는 진두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3일 오전 6시 2분 진두항에서 남서쪽으로 1.2km 떨어진 해역에서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시배 선창1호를 충돌해 낚시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숨졌다.

황금현 기자 kchwang@donga.com

중부일보

2018년 01월 09일 화요일 015면 사회

“섬지역 주민 유류비 지원 이뤄내 보람”

이슈 Talk **장정민 웅진군의회부위원장**

초선때부터 추진한 난방유류 면세
처음엔 일부만~나중엔 郡 확대
지원금 연간 34억원 확보 결실
지난해엔 국회에 50%할인 청원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밑바닥 민생
의 말을 듣고 봉사하는 진정한 생활정치
의 구현자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인천 웅진군의회 장정민 (49·내령면, 대청면) 부의장은 3선 의원답게 웅진군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고 약자이며 기초의원들이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기본 신념이 짙게 깔려있었다.



장 부의장의 남다른 군민 중심 사랑은 웅진군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됐다. 장 부의장은 올해로 3년째 전국 도서

지역 기초의원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 협의회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2008년, 39살에 초선의원이었던 장 부의장은 도서지역에 난방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주장했다.

당시 군 난방연료는 90% 이상 유류에 의존했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3배까지 가중됐다.

그는 대안으로 난방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에 대한 면세를 주장했다.

장 부의장은 “처음에는 내년도 주민 1천여 명으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았다가 이후 군 전체에서 서명을 받았다”며 “관계 부처를 상대로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국회에 청원도 했다”고 회상했다.

장 부의장은 이 문제가 웅진군에만 한정된다고 보지 않고 타도서지역 기초의원들과 힘을 합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16개 시도 내 도서 지역 기초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협

의회가 구성됐다.

노력 끝에 장 의원은 군 유류비 지원금으로 연간 34억 원을 확보했고 주민들은 1ㄹ 당 10원 안팎의 유류 할인을 받게 됐다. 섬을 오가며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들은 운반비의 20%를 할인 받게 됐다.

장 부의장은 “지난해에도 국회에 50% 할인 요구 청원을 했다”며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음 달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있다.

학구열보다는 주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군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이었다.

장 부의장은 “도서지역 발전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청정 환경 속에서 사람이 행복해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희망웅진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현진기자

기호일보

2018년 02월 01일 목요일
017면 사람



웅진군의회도 ‘이웃사랑’ 동참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 전달

인천시 웅진군의회회는 31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최근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적십자 회비 모금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동현 의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모금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특별회비는 어려운 이웃과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 및 인도적 활동에 뜻깊게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적십자회비로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결연과 생필품·구호품 지급, 수용보호소 운영, 세탁·급식 운영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웅진군의회 백동현 의장 '의정봉사대상' 수상

웅진군의회 백동현 의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이번 상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지방의원에게 주는 상으

로, 백동현 의장은 도서지역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직접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왔으며,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대민지원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한편, 백동현 의장은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군민 곁에서 소통하고 웅진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지방의정의 주민참여 확대와 의정혁신으로 주민의 참여속에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지방분권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안창남 기자



Ongjin District Council

의정 포커스

- 통계로 본 의정
- 주요 제정 조례
- 의정 주요 질문답변



통계로 본 의정활동

01 회 기

- ▶ 제197회 웅진군의회 임시회(2017. 7. 18. ~ 7. 21. / 4일간)
- ▶ 제198회 웅진군의회 임시회(2017. 8. 25. ~ 9. 4. / 11일간)
- ▶ 제199회 웅진군의회 임시회(2017. 10. 16. ~ 10. 20. / 5일간)
- ▶ 제200회 웅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2017. 11. 17. ~ 12. 12. / 26일간)
- ▶ 제201회 웅진군의회 임시회(2017. 12. 22. / 1일간)
- ▶ 제202회 웅진군의회 임시회(2018. 2. 5. ~ 2. 9. / 5일간)
- ▶ 제203회 웅진군의회 임시회(2017. 3. 12. ~ 3. 16. / 5일간)

02 회기운영

- ▶ 개회횟수 : 7회(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 ▶ 회의일수 : 57일(정례회 31일, 임시회 26일)

03 의안처리현황

구 분		발의 · 제출			의 결				철회
		계	의원	군수	원안	수정	부결	보류	
총 계		75	4	57	59	2	—	—	—
조례 · 규칙 및 동의 · 공유재산	소 계	66	4	52	51	1	—	—	—
	조례 · 규칙	제 정	6	—	6	6	—	—	—
		개 정	28	—	28	27	1	—	—
		폐 지	—	—	—	—	—	—	—
	동의 · 공유재산		30	—	16	16	—	—	—
	기타(승인 등)		2	—	2	2	—	—	—
예 · 결산		5	—	5	4	1	—	—	—
결의안		4	4	—	4	—	—	—	—

주요 제정 조례

01 제200회 임시회

▶ 웅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 조례

□ 제정이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

▶ 웅진군 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이유

행복한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안보교육을 통한 안보의식 함양과 안보 관광 활성화 를 위하여 설립한 웅진군 연평안보수련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근거 및 기준 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함.

02 제202회 임시회

▶ 웅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7. 9. 22.)으로 생산관리 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을 조례로 제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를 위해 입지구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항을 명시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03 제203회 임시회

▶ 웅진군 관광진흥 조례안

□ 제정이유

웅진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지역의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 정함.

의정 주요 질문답변 | 제197회 임시회

제197회 웅진군의회의 임시회는 최성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1일 집회공고하고,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개최하여 웅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웅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진행하였다.

부의안건

1. 웅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웅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웅진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웅진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웅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웅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웅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신 영 희

웅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신영희 의원

일전에 웅진군의회의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제외지역에 대한 바로잡아달라는 청원서와 결의문을 해당 부처에다가 송부한 이후에 웅진군에서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두 가지를 같이 올리면 둘 다 안 될 염려가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한 가지만 농어촌 특별전형에 관한 부분만 제안을 했는데 7쪽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제가 뭘 지적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데 우리 지역에 꼭 이렇게 이 규정에 제한을 받아서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을 받지 못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웅진군에서 20억 가까이 20억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 예산을 매년 집행을 하는데 고등학교 석식까지 제공 하면서 3시간 내지 4시간씩의 통학거리를 다니면서 애쓰고 있는 북도면의 학생들은 이것 혜택을 받지 못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따른 파생된 교육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하 요인에 따라서 장학금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가 이렇게 훌륭한 장학관 혜택도 별로 보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뻔히 아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개선가야지 뭐 상위법이 없다 그러는데 상위법에 없으면 오히려 이런 것을 개선하기가 쉽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만 행정자치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6월 21일날 한국 대학교 교육협의회라든가 인천시교육청 등에 놓어준 특별 전형에 대해서 좀 개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먼저 정비가 돼야 된다 그런 회신이 왔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우리 군에 관련된 사항을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에 전달하겠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에 17일날 의논을 했고 또 거기서 통과된 내용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중앙에 제출할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 주요 질문답변 | 제198회 임시회

제198회 웅진군의회 임시회는 김기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18일 집회공고하고,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개최하여 웅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웅진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2017년도 도서관방문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진행하였다.

부의안건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16 ~ '17년도 도서관방문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



의원 김 형 도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김형도 의원

지금 팜투어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약속을 계속 어기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 것 아니냐고. 그런데 협약서 종이쪽지에도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흥내만 내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냐 이거야. 자, 평소 다른 선박들하고 똑같은 선박을 가져 오겠다 그래 놓고 한 시간이나 차이나는 것을 제재도 못하면서 구두상으로 협약서로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제재할 수 있는 게?

조희군 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약을 오전 출항하면서 손실금보전을 해주겠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시간 반까지. 그래서 지금 손실금보전은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그 지원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손실금에 대한 지원, 개네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서 지원은 안 될 것고요. 다섯시간에서 개네가 네 시간 반까지 이전까지 줄어들기 전까지는 손실금 지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네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만한크의 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이 그렇게 지키지 않고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의정 주요 질문답변 | 제199회 임시회

제199회 웅진군의회 임시회는 김성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0일 집회공고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여 의원발의로 부의된 웅진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조례안, 북도면 장봉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외 2건의 공유재산안, 한국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안 외 2건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부의안건

1. 웅진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웅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웅진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웅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북도면 장봉2리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부지매입
6. 백령면 연화2리 마을창고 부지매입
7. 백령면 연화3리 두무진 마을경관개선 사업부지 매입
8. 한국 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안
9. 웅진군 장학재단 재산출연안
10. 주민건강검진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승인안



의원 김 기 순

웅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김기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준지가부터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표준지가 지정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것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얘데요. 그러면 표준지 국토부에만 미룰 게 아니죠.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 보니까 이렇더라 내려라 상위 상부기관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슨 뭐 줄줄 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데요. 땅이 팔리지 않고 그러면 내려가야지 왜 땅이 팔리지

않는데도 자꾸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걷어들이는, 나쁜 의미로 세금 걷어들이기 위한 행정의 일환이고 또 도로변에는 도로 확포장하는 데는 군도 확포장한 그 부지 이외에는 웅진군에서 별로 땅을 매입한 게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매입한 주민들 것 별로 매입한 게 없잖아요. 재경부 땅, 자산관리공사 땅 그런거나 매입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이죠. 조세 저항 이런 것 우리 주민들이 몰라요. 이의신청 정회용 팀장이 담당이죠? 이의신청하는 것 그것 보면 타당성 있게 이의신청하는 주민들 있어요? 몰라요 몰라. 주민들 얘기가 이의신청 해 봐야 그것 되지도 않아 왜? 당신이 상식이 없으니까 제대로 법에 맞춰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형지물 그걸 할 사람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감안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얘기가. 어느 데는 공시지가가 3배, 4배는 싸고 어느 면은 진짜 북도나 영흥 같은 경우 자월, 덕적 같은 경우 엄청나게 비싸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써서 감안을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의원 신 영 희

웅진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신영희 의원

네, 굉장히 유감이에요. 이게 웅진군의 반이 여성인구인데 저는 여성담당이 여성 업무를 잘하기도 벅찬데 혼자서 뭐 장애인에 관련된 거라든가 다문화에 관련된 업무까지 지금한다 그랬는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냥 표피적인 의례적인 행사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늘 요구하는게 그런 여성 관련한 사회단체라든가 전문가군들이 참여해서 웅진군도 그냥 매년 무슨 취미교육 이런 단순한 여성에 관한 활동이 아니라 여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실있는 양성평등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니까 매우 가슴이 아프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은?

여명옥 여성장애인담당

여성발전위원회 이 삭제 건은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되고요. 저희가 여성발전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정해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법 조항을 넣어 갖고 만들면, 만들려고 하고.

신영희 의원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금 매년 제가 무슨 취미교육 해서 꽃으로 뭐 만들고 구슬로 가방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설문 조사하면 공짜로 재료 주고 만들고 또 점심 사주고 그러면 다 좋다 그러지 설문조사해서 나쁘다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진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낙후된 우리 섬의 여성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해도 또 그런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의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의정 주요 질문답변 | 제200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1월 10일 집회공고하고, 11월 17일부터 12월 12까지 26일간의 회기로 개최하여 의원발의로 부의된 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과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 가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외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옹진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동의안,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였다.

부의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5.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7.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 조례안
10. 옹진군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옹진군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옹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20. 가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21. 대청1리 경로당 부지 및 건물 교환
22. 보건소 신청사 건립부지 변경
23. 옹진섬 외국어교실 민간위탁동의안



의원 김 성 기

웅진군 연평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김성기 의원

우리 군민뿐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해서 오시면 안보의식을 좀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수련원이 운영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득이, 소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더 좋은 수련원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주환 안평안보수련원장

그래서 수련원에다가 특산품을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렇지, 그런 데로 착안도 하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좀 생각들 하시고, 우리 웅진군에 처음 수련원을 운영하는 거니까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수련원 우리 원장님 빔대서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성기 의원

아니, 인상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지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을 10만원으로 했을 때는 어떠냐 이거야 행정에서는 34명이라야 얼마 오르는 거예요, 7만원 더, 10만원으로 하면 7만원 오르는 거죠?

이철 복지지원과장

10만원으로 하면 월340만원이니깐 1년에 한 4천 5천이면 충분 하겠습니까.

김성기 의원

그렇죠. 10만원이나 해 주면서 무슨 예우 차원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뭐 3만원, 5만원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우리 참전유공 같은 분들은 진짜 많이 해 줘야 돼. 6.25참전 이런 분들 자꾸 돌아가시니까 인원이 자꾸 적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의원 김 기 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김기순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에요. 과장님도 동감하잖아. 공감하잖아. 1,000책 하는데 뭐 2~3일 한 번씩 해태 채취한단 말이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관리선이 없어 남의 것 빌려서 수협에서 벌써 다른 사람이 빌려갔어. 그러면 김이 너무 과다 자라면 또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만큼 손해가 나잖아. 그러면 그런 것을 비례해서 둘이, 셋이 공동관리선을 누가 그것 관리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오국현 수산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

전혀 우리 지역어민들이 관리선을 요구, 지원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민들이 없다면 예산 세웠다 반납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그런 수요자가 있다면 해주면 좋잖아요. 그만큼 효율적인 거고 부가가치도 높이고 소득도 올리고 그것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정보를 입수해 봐 가지고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오국현 수산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 성 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최성일 의원

그것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육지로 못 나올 여건이 됐는데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지 못해서 간병인이 필요로 한데 실장님 말씀대로 누가 섬으로 들어가서 간병을 하려 그러겠습니까 비용이나 많이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 군에서 비용을 많이 주겠습니까. 본인도 또 취약계층이니깐 간병인을 필요해, 자기가 자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안 되겠죠 보통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철 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고를 내서 혹시 특히 서해5도서 같은 경우에는 군인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혹시 간호사 출신이라든가 그런 군인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한번 내보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섬에서 인적자원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 채용을 해서 어떤 간병인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장 장 정 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장정민 의원

지금 백령 진촌지역에 상수도 쓰는 게 하루에 한 800t 이상 써요. 성수기 때는 관광객들이 올 때는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거의 1,000t 가까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진촌지역에 하수관 공사가 되지 않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들을 사곶 용기포 쪽 진촌3리, 5리쪽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 규모 더 커야 돼요 이게 처리 용량들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오영림 상수도 관리 담당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90t 정도 더 늘린다 그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게 합류식이고 분류식으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0t 이상 규모가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게 한다 그러면 공사가 만약에 예산이 반영 돼서 내후년부터 시작할 텐데 지금 동네 뭘니까 마을경관사업 한다고 해서 마을마다 포장 다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이것 한다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되지만 관련 부서랑 협의할 필요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용량에 대한 이 규모 갖다가는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애당초 할 때부터 계획을 제대로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이것도 환경공단이랑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올린 겁니까? 용량을 해서 더 늘려야 돼요. 무조건 늘릴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오영림 상수도 관리 담당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 형 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김형도 의원

대청면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소청만 했지 소청만. 소청도 했어요, 안 했어요? 소청 노화동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청도는 2015년, 2016년도에 2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경관사업을 했습니다. 면 내에는, 우리 대청면 내에는 한 마을이 한 곳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철수 서해5도지원단장

그거와 관련해서 소청도 하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에 대청도에 마을생활개선사업에 패키지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30억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사업은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고요. 아까 두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에 지역경관 개선사업 2건이 백령 두무진마을 경관 개선사업과 대청마을 생활개선 패키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키지사업이 내년에 대청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형도 의원

지금 7년여를 이 사업을 했는데 대청면이 계속적으로 누락이 돼 있었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고요.

박철수 서해5도지원단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신청이 좀 안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형도 의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철수 서해5도지원단장

맞습니다.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의정 주요 질문답변 | 제201회 임시회

제201회 웅진군의회의 임시회는 신영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18일 집회공고하고, 12월22일 1일간의 회기로 개최하여 웅진군수로부터 제출된 웅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웅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진행하였다.

부의안건

1. 웅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웅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최 성 일

웅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일 의원

지금 서해5도특별법에 보면 모든 사업이 2020년까지 당초에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는 존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기획실장

그런데 사업소가 한시기구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업무가 중단 되는 것은 아니고 부서를 달리해 가지고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5도단이 한시기구 내년도 말에 폐쇄된다 그래도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성일 의원

지금은 현재는 중점으로 5도단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가 내용부터 조직이 개편된다 그러면 업무가 미진하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수 기획실장

내년 말에 후년도부터 통합 다른 과를 통합해서 조직 개편해서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업무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의정 주요 질문답변 | 제202회 임시회

제202회 웅진군의회 임시회는 김기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29일 집회공고하고,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개최하여 웅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 웅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진행하였다.

부의안건

1.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2. 웅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웅진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웅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웅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웅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웅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 신 영 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신영희 의원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잠깐 오늘 아침에 제게 온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께 읽어 드리고 싶어요.

입춘대길 봄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북극처럼 얼어버린 저 바다와 같습니다. 동북아 허브공항 옆이면 뭐 합니까 얼음에 갇혀 일상이 마비된 상태. 물론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선거 때만 다리 놓겠다는 것 말고 진짜 진실로 북도 좀 살려주세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제가 하나 받았고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께서도 아시지만 흑한으로 북도면에는 15일째 제대로 배가 운행되지 못하고 또 김 양식장이 황폐화돼서 제대로 피해 산정조차도 못 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벌어졌고 또 엇그저께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서 밤새 주무시다가 숙환으로 별세하셨는데 몇 시에 어느 시간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빙 때문에 배가 운항할 수가 없어서 이를 만에야 인천으로 시신을 모셔서 장례를 모시게 되는 등 우리 섬 사람들의 애환이 그대로 녹아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는데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고 개선해 주는 역할에 충실한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게 온 어떤 촌로의 절규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특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 군수, 지역의원들이여!
중앙 부처의 고시 출신 고급 공무원들이여!
탁상행정 집어치우고 여기 한번 와 보슈.
앞은 휘황찬란한 국제공항 그 앞엔 중벌 죄 유배지.
원통할 지고 원통할 지고 내 눈을 감기 전에 다리가 소원인데
왜 이다지도 연륙이 안 되고 양반님네들아 섬에도 사람이
산 다네 말로 장난치지만 섬 사람들은 절규와 분노로 또 봄을
맞아야 하는가. 동물 복지 걱정하는 나라에서 북도면 주민들은
개, 돼지만도 못 한 취급받으니 이게 웬 차별인가.

이하 생략하는데 이게 과연 북도만의 일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웅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외 4건,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백 동 현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백동현 의장

102쪽에 꽃길조성사업 아까 어떤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이것 영흥 선재대교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해풍이 세 가지고 생화를 만약에 여기다 식재를 해 놓으면 사실 이게 며칠 못 가거든요 기후를 떠나서. 그래서 이런 곳은 생화 보다는 조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화를 심어놔야 바람 한번 불고 나면 다 꽃이 그냥 찢어지기도 하고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좀 보기 좋게 조화로 계절 마다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만 바뀌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붉은노리로도 꽃화로 했다가 나무 심었죠?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영흥도에 누락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성림 환경녹지과장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 계획을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착수보고회가 있는데 제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거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선재도 마찬가지로요. 선재도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펜션있는 지역들은 다 누락이 됐거든요. 왜냐면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하고 지금은 엄청난 집이나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정비계획 때 변경 계획때 국비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정 주요 질문답변 | 제203회 임시회

제203회 웅진군의회 임시회는 최성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8일 집회공고하고,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하여 의원발의로 부의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웅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개 조례안, 웅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안 외 1건의 공유재산, 2018년 서해5도 고혈압·당뇨병합병증 예방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진행하였다.

부의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계획안
2. 웅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웅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웅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웅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웅진군 관광진흥 조례안
7. 웅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웅암해변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9. 백령 29호 대피시설 건립
10. 2018년 서해5도 고혈압·당뇨병합병증 예방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11.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견



의원 김 기 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김기순 의원

지난번 2월 27일날 영흥면 내4리 노인정 준공식을 가졌죠?

이철 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 위에 사는 할머니 이야기라고 수 년 동안 거기 다니던 도로를 김철호 재향군인회장 땅을 매입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를 공사하면서 다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다, 집에 들어가는 도로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철 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김기순 의원

더군다나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노인분들도 다 우대하고 보호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다닐 길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 복지지원과장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준공식 때 할머니도…….

김기순 의원

준공식 때가 아니라 공사할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철 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설공사를, 경로당 신축사업 시설 공사를 할 때 인근에 주변 토지들 토지 소유자들하고 그게 아마 협의가 안 돼서 아마 도로를 우리 웅진군 땅을 측량해서 옹벽을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영흥면하고 협의해서 빨리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

그것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평생을 사신 노인분인데 그 도로로 다니던 것을 다 옹벽을 치고 막아버리면 남의 땅이라면 못 한다 그러지만 토지도 매입해서 노인정을 건축하면서 그것도 다해서 함께 해드렸어야 맞지 않냐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위원들하고 면장만 욕만 먹게 만들고 말이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이의제기하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 위원들하고 면장한테만 욕하지.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더군다나 복지지원실, 복지지원과에서,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과에서 말이에요. 그 양반이 80살도 더 잡순 분인데 평생을 거기서 사신 분이야. 다니던 길을 그렇게 막아버리면 노인분 혼자 사시면 막아버리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이철 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 정 민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장정민 의원

올 겨울에 북도면 장봉도 신시모도 지역에 김 양식 피해들이 컸잖아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김 양식 농가들 지원책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네요.

박철수 수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피해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청 들어온 게 한 1,300채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한 813채 정도 됩니다. 해서 지금 농어촌 재해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난조사를 하고 올려 보내놓은 상태에서 양식어장 기자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먼저 추가로 하고 저희가 2회 추경 정도에 한번 재해비가 어민들은 좀 적지만 그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 지금 당장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정민 의원

아니, 다음 추경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뭐 반납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박철수 수산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이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양식 기자재사업을 편성시켜 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소진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김 양식 조업시기가 9월, 10월로 돼 있기 때문에 기자재는 본예산에 있는 것을 먼저 소진하고 나서.

장정민 의원

양식 기자재사업 자부담 비율이 몇 %예요? 40%입니까, 60%입니까? 40%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번에 지원 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도 찾고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번

수산과 예산 편성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조업철이 다가왔는데 대청, 백령 어장에 어민들이 작년부터 꽃게 치어를 방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철수 수산과장

저희들이 꽃게자원을 수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우리 시 산하기관인 우리 수산자원 연구소에서 꽃게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서해5도 쪽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에 생산되는 꽃게자원을 우리 서해5도 쪽으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정민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령, 대청지역에는 작년 가을에 꽃게가 많이 안 났어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방류를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뭐 지금 그쪽만 핑계대고 있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하셔서 가지고 다른 방류사업보다도 미리 해서 그것도 분명히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Ongjin District Council

결의안 채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4대 동시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와 같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치와 분권, 그리고 공간적 권력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깊고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입니다. 아울러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단 두 조문만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 미비 등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권,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2016년 말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제 주민이 행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군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웅진군의회에서는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9월 4일

인천광역시 웅진군의회 의원일동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우리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글로벌지엠의 수익구조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GM 이사회 의결안 거부권 10월 소멸 등을 근거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국지엠 철수설 및 구조조정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인천광역시 옹진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노동자·시민이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우리 인천에서 시작되었다. 1962년 새나라 자동차가 인천 부평에 공장을 건설하여 근대적인 조립생산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부평의 자동차 공장은 신진·GM 코리아·새한·대우·GM대우·한국지엠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는 9,1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인천지역 협력업체 수는 1만여 곳에 이르며, 한국지엠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달하여서 지역 내 약 20만개의 일자리가 한국지엠과 관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2년 제너럴모터스(GM)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 국내에는 우려의 시각이 많았지만, 한국지엠은 대형차를 위주로 생산해오던 GM에 중소형 차량 생산 노하우와 기술력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후발주자였던 상하이지엠(GM의 중국 합작사)은 중국시장 1위 자동차회사로 발돋움하였으며,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도산위기를 맞았던 GM이 다시 세계 자동차시장의 패권을 되찾는 데에 한국지엠이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M은 글로벌 네트워크 개편을 추진하면서 한국지엠의 생산물량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갔고, 한국지엠을 단순 하청 생산 기지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위기 국면과 맞물려서 한국지엠은 판매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4년 3,332억원의 순손실을 시작으로 2015년 9,930억원, 2016년 6315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3년 동안 2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지엠의 경영전략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GM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지엠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른 산업은행의 ‘GM 이사회 의결안 거부권’ 10월 소멸과 관련, 최근 산업은행은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한국지엠의 철수설은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협약에 따라 2017년 10월 16일 비토권이 소멸되고,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한다면 한국지엠의 철수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인천시 옹진군민의 대의 기관인 옹진군의회는 인천 지역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한국지엠의 철수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결사반대하며, 한국지엠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한국GM이 토착기업으로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GM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국지엠 철수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한국지엠의 단순 하청 생산기지 정책을 중단하고, 한국지엠이 토착기업으로 안정화될 장기적 발전전망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
- 하나, 정부는 산업은행이 글로벌지엠과 합의한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 협약 만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보유 지분을 유지하고, 글로벌지엠과 ‘거부권(비토권) 유지’를 위한 새 협약을 체결하라!
- 하나,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치권·기업·노동자·시민이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발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원일동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세월호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군 관내에서 해난 참사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 어선 충돌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역에서 22명이 탄 낚시배가 영흥대교 인근에서 336t급의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시배 9.77t급 선창1호가 영흥대교 남측해역의 좁은 수로에서 충돌사고로 사망자 1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해역은 암초와 빠른 유속, 조수간만의 차로 선박이 다닐수 있는 해로폭이 200~300m 정도로 좁은 편이고, 수심도 6~18m에 불과하여 평상시에도 낚시배 운항이 많아 경미한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해역으로 그동안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참사는 최근 레저수요가 늘면서 낚시 인구가 700만명에 달하고 있고, 등산인구 보다 많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안전사고에 취약한 바다낚시에 대해서 정부의 해상안전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아직도 후진국형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에서는 총35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하였고, 선박·갯바위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관계 기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해있는 영흥도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영흥 화력발전소의 건립으로 2001년 영흥대교가 개통되고 연육화되면서 풍부한 수산물, 해수욕장, 국사봉 등산로, 에너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연4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낚시배가 출항 하는 진두항에는 어선들이 상시 정박·운항하고 있으나, 영흥도~선재도간 협수로는 대형 선박의 왕래가 잦아 충돌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어서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군 영흥도 해역에서 일어난 낚시어선 침몰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설마라는 안이한 의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서,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어선안전사고 발생 근본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의지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옹진군의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영흥도해역에서 발생한 낚시배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선박사고 방지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첫째, 영흥도 해역은 평소에도 소형어선 3~4척만 동시에 통행이 가능한 좁은해역이나, 대형선박이 1일 7회이상 운항하고 있어 선박충돌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영흥도~선재도간 협수로 내에 대형선박의 통항을 전면 금지 조치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 둘째, 영흥도 진두항은 지역어업인의 어선 146척과 타지역선박등 200여척이 수시 정박하고 있으나, 항구가 매우 협소하고 항내에 갯벌이 쌓여 있어 정부에서는 지역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인 진두항의 갯벌 준설을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조속히 정비하고, 진두항의 대규모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부지 확대를 위해 국가어항 신규지정 및 개발을 앞당겨 추진하라.

2017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원일동

영흥화력 석탄먼지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첫 가동된 영흥화력 발전소는 현재 총 6기가 풀가동 중에 있다. 매일 발전에 사용되는 석탄만 해도 5만여 톤에 이르는데 지난 13년간 영흥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며 발생한 석탄재 400여 만 톤이 발전소 내 처리장에 쌓여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흥화력에서는 차량으로 1일 최대 2천톤을 육지로 반출하고 있지만, 25톤 트럭이 80회 왕복하면서 석탄재 상차 작업 중에 날리는 석탄재로 인해 최근 인근 지역 농작물·주민피해로 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0년 전부터 발전용으로 야적장에 쌓아놓은 석탄분진 가루가 인근 마을에까지 날아와 주민들의 환경·건강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11개 석탄발전소 인접 지역 사망률에서도 영흥지역이 충남서천에 이어 2번째로 사망률이 높고 특히 심혈관 질병 사망률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흥화력 인접마을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발전소 가동 이후 폐암과 폐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영흥화력 석탄 비산 먼지가 주민건강에 악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반면에 영흥화력에서는 지난 2004년 영흥화력 가동 이후 단 한 차례도 석탄먼지에 대한 주민 피해조사가 진행된 바 없이 매립장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만을 작동시켜 석탄재에 수분을 공급하고 있어 강한 바람이 불면 석탄재 날림먼지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역 어촌계에서는 석탄사용 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주변의 어패류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수산물의 생산량도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 어업피해도 상당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14년부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난안전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어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인 영흥면의 환경개선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옹진군의회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영흥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 관광명소인 영흥도의 발전을 위해 최근 지역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요구하고 있는 영흥화력 석탄먼지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첫째,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먼지에 대한 영흥 주민피해와 원인규명을 철저히 한 뒤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특단의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둘째, 영흥화력발전소에서는 2025년까지 진행될 저탄장 내부 저장시설 추진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고, 매립장에 대해서도 석탄재 날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 셋째, 인천광역시 및 인천시의회에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 소재지인 영흥면의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 등으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천광역시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라.
- 넷째,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흥화력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라.

2017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원일동



Ongjin District Council

도서방문



각 면별 도서방문

(건의사항 : 14건)

2017년도 옹진군의회의원 도서방문

- ▶ 지역현안 및 도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시설투자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현장 확인을 위한 2017 도서방문을 지난 3월 6일 영흥면을 시작으로 관내 도서 4개 도서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 ▶ 옹진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추진 실태를 현장 확인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
- ▶ 또한, 전체적으로 공기 안에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준공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방문일정

면 별	방 문 도 서	기 간	비 고
영흥면	영흥도, 선재도	2017. 3. 6 (1일간)	
덕적면	덕적도	2017. 3. 7 (1일간)	
자월면	자월도		
북도면	신시모도, 장봉도	2017. 3. 8 (1일간)	

건의 사항 (14건)

면 별	건의자	제 목	비고
북도면	면 장	· 신도2리 도로 확포장공사(군도12-1호선) · 시도리 마을방송 신규설치	
덕적면	면 장	· 굴업도 선착장 접안시설 보강 · 군도51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건의	
자월면	면 장	· 자월힐링 체육공원 조성사업 · 대이작 여객선 선착장 및 물량장 확충 · 소이작 여객선 선착장 및 벌안항 확충 · 대이작 게이트볼장 조성 · 자월면 주변해역 굴 폐사 원인 조사	
영흥면	면 장	· 십리포 해안데크 추가공사 · 농어촌공영버스 증차 건의	
	의 원	〈진두 공공하수도 건설 관련〉 · 끊어진 관정으로 인한, 일부지역 농업 용수 부족 우려 · 과거계획을 기초로 한 공사로, 현재 필요한 처리용량에 미흡할 우려 · 최종 처리된 물의 수질을 주민 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연못 조성 등의 계획 건의	

추진 사항 (제19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보고)

2017.09월 기준

순번	건의 및 현안 내용	건의자	보고내용	비고
합계	9건			
관광문화과				
1	자월힐링 체육공원 조성 사업 <건의>	자월면장	추진 중	자월
2	대이작 게이트볼장 조성 <건의>	자월면장	추진 중	자월
3	십리포 해안데크 추가 공사 <건의>	영흥면장	추진 중	영흥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과)				
4	농어촌공영버스 증차 건의 <건의>	자월면장	추진 중	영흥
건설과				
5	신도2리 도로 확포장공사(군도12-1호선)<건의>	북도면장	추진 중	북도
6	군도51호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건의<건의>	덕적면장	검토 중	덕적
지역개발과(도시안전과)				
7	굴업도 선착장 접안시설 보강 <건의>	덕적면장	추진 중	덕적
8	대이작 여객선 선착장 및 물량장 확충<건의>	자월면장	추진 중	자월
9	소이작 여객선 선착장 및 벌안항 확충<건의>	자월면장	추진 중	자월

※ 추진 완료보고 제외

Ongjin District Council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개 요

-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 ▶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 감사기간 : 2017. 11. 20 ~ 11. 27(5일간, 11월 23일 현장방문)
- ▶ 감사대상 기관 : 옹진군 집행부대상(15개 실과단소)
- ▶ 감사반의 편성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
 - － 위원장 : 최성일 의원
 - － 간 사 : 김형도 의원
 - － 위 원 : 김기순 의원, 김성기 의원, 신영희 의원, 장정민 의원
- ▶ 감사일정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11.20.(월)	①기획실 → ②복지지원실 → ③관광문화과
2017.11.21.(화)	①수산과 → ②도서개발과 → ③재무과
2017.11.22.(수)	①건축민원과 → ②건설과 → ③ 서해5도특별지원단
2017.11.24.(금)	①지역경제과 → ②보건소 → ③농업기술센터
2017.11.27.(월)	①환경녹지과 → ②행정자치과 → ③연평안보수련원

감사 실시내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비고
76건	21건	40건	15건	

인천시 군구의장단 협의회 정기회

협의회 개요

- ▶ 의회의장협의회는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지역간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제1대 기초자치단체 의회 후반기부터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내역

▶ 2017년 8월 월례회의

- 인천시군구의회 의정봉사대상 수상 대상자
- 의회 지방별정직 비서(관) 직급상향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

▶ 2017년 9월 월례회의

- 인천시군구의회 의정봉사대상 수여
- 협의회 2018년 부담금 예산편성 기준 마련
- 용정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

▶ 2017년 10월 월례회의

- 의정연수 실시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 논의
- 인천시 군구의회의장 의정대상 수여

▶ 2017년 12월 월례회의

- 정산보고
-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참석

협의회 활동사진



의회 알림 사항

의회 방청 안내

의회의 본회의 방청은 일반, 단체, 장기방청으로 구분되며 방청의 허가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교부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61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하며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 가능합니다.

▶ 입장의 제한

-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취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방청의 제한

-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와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열람

웅진군 의회 홈페이지(www.ongjin.go.kr/council)에는 의회소개, 의사일정, 의장 및 의원 소개, 역대의원 현황, 의정활동 현황, 회의록, 의회에 바란다 등으로 구성되어 의회의 다양한 정보 열람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의회 소식지 발간

웅진군의회회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여 군민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으며, 구독을 원하실 경우 우편으로

의회 전화번호 안내

의장실 : 032)899-3002 / 부의장실 : 032)899-3003
의원실 : 032)899-3011~3015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http://www.ongjin.go.kr/council>

22193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전화. 032-899-3030
팩스. 032-899-3039